

제주 성이시돌 복지의원을 소개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 50
대표전화 : 064-796-7244

성이시돌 복지의원은 2002년 3월 2일 시작된 독립 시설형 호스피스 병동으로 제주도 한림읍 산록남로(금악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설립자 임피제 (P.JMcGlinchey) 신부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말기 암 환자,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모시고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의 정성과 수녀들, 직원들의 봉사와 사랑이 하나 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요구들을 파악하여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가족처럼 사랑으로 보살펴 드리는 무료 의원입니다.

대지 4,057㎡(1,227평), 건평 424.75평 규모의 건물로 산책로, 휴게실, 임종실, 소성당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총 15병상의 맑은 공기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모시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과 동일하게 암 진단 후 수술, 항암, 방사선요법 등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신 분과 통증 완화 및 증상 조절을 해야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점은 무료로 운영된다는 것이고, 경제 사정이 열악한 경우를 우선으로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병의 고통을 가진 자체를 가난하게 보는 마음으로 설립자 신부님의 취지에 따라 종교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분을 입원 대상으로 모십니다. 육지에서 치료받으시다 내려오시는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병원을 거쳐서 오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원 절차는 먼저 전화나 내원 상담 후 기존 병원의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





시면 본원에서 입원 날짜를 조정하여 입원을 받습니다.

설립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유료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저희가 힘닿는 대로 돌보아 드리고 있으며, 보호자에게도 숙식을 제공합니다.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영적 지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후원자님들과 봉사자님들의 정성으로 운영되기에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에

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경축할 일은 1970년에 성이시돌 의원을 설립한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아산상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시돌협회는 의료시설이 열악해 치료받기 어려운 제주지역의 극빈 환자들을 무료 진료하였고, 2002년 제주도 최초의 호스피스 무료 의원으로 전환하여 말기 암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분이 편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시돌 복지의원을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